



코스피지수	2,643.13	▲ 976.77
코스닥지수	719.41	▲ 34.86
환율(원/달러)	1,487.00	▲ 14.00
금리(국고채 2년, %)	2.587	▲ 0.001

투자를 똑딱!  
**개비증권**  
\* KB증권

## 다시 깨운 정주영 정신 현대차 올해 27조 투자

선대 회장의 도전정신·품질경영  
글로벌 불확실성 넘을 '열쇠'로  
전년대비 투자규모 15% 늘리고  
사사 발간도 추진...5월 TF 가동

현대자동차가 미국발 상호관세 등 대내외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정주영 선대회장의 '도전정신'과 '인본주의' 철학을 전면에 내세우고 올해만 27조원 이상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한다. 이는 전년 대비 15%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올해 초 신년회에서 '이순신 정신'을 꺼내 들며 혁신의 필요성을 강조한 정 의장선 현대차그룹 회장인 이를 통해 최근의 위기 상황을 새로운 기회로 삼아 상황을 반전시키겠다는 구상이다. ▶관련기사 3면

23일 업계에 따르면 현대차는 오는 2027년 창립 60주년에 맞춰 '사사(社社)'를 발간하기 위해 올해 5월부터 전담 태스크포스팀(TFT)을 가동한다. 지난 2022년부터 3년 연속 글로벌 판매 품3 완성자 그룹으로 올라선 현대차는 최근 고조되고 있는 대내외 불확실성을 돌파하기 위해 정주영 선대회장의 헤리티지(유산)를 기리고, 이를 전면에 내세우기로 했다. 현대차는 조만간 수십명 규모의 '사사' 편찬 TFT\*를 가동키로 하고, 일간지 및

연구직 직원을 대상으로 사내 공모를 받고 있다. 사내 공모는 이달 31일까지 진행되며, TFT는 2027년 12월까지 2년7개월간 운영할 예정이다. 현대차의 창립일은 1967년 12월 29일이다.

현대차는 내부 공지를 통해 임직원에게 "정주영 선대회장으로부터 이어져 온 인간중심 헤리티지의 본류를 총체적인 기폭으로 조망하고, 과거-현재-미래를 관통하는 현대차의 근원적 철학과 정신을 되새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차그룹이 올해만 주요 계열사를 중심으로 27조6834억원의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며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는 것도 이 같은 전략의 연장선이다. 이는 전년 대비 약 3조7000억원 늘어난 금액으로, 증가율은 15.8%에 이른다.

앞서 정 의장선 회장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 인공지능과 로봇 등으로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바뀌는 가운데 헤리티지의 중요성을 피력해왔다. 정 회장은 지난 2023년 9월에서 처음 진행했던 헤리티지 프로젝트 '포니의 시간' 전시 행사에서 "앞으로도 선대회장의 인본주의 철학, 명예회장이 품질과 기쁨을 강조하신 것을 바탕으로 미래 도발리터를 통해 사람을 향한 진보가 지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준근 김준서 권준호 기자



전국에 동시다발 산불  
하고 있다. ▶관련기사 12면

지난 21일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면서 인명·재산 등 피해가 확산 중이다. 대형 산불 발생 시뮬레이션 23일 의성군 산불 발화지점 인근 야산에서 산림청 헬기기가 산불 진화작업을 펼친다.

## 글로벌 금융 허브도시 위상 높아진 부산

부산이 세계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 지수인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평가에서 119개국 중 24위에 올랐다. 역대 최고 점수인 728점을 기록하며 글로벌 금융 허브도시 부산의 위상이 세계적으로 크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금융 순위는 국내외 금융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2015년 이후 평가 중 최고 성적이다.

영국 글로벌 싱크탱크 컨설팅그룹 지엔(Z/YEN)사는 전 세계 119개 도시를 분석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37차 보고서'를 한국시간으로 지난 20일 저녁에 발표했다. 23일 이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은 2023년 3월 37위에서 13단계 상승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지난해 상반기부터 3회 연속 20위권에 안착했다는 것이다. 아시아권에서는 홍콩, 싱가포르, 상하이, 두바이, 도쿄 등에 이어 9위를

맞 GFCI 평가 3회째 20위권 아시아에서는 도쿄 이어 9위 시 꾸준한 정책지원 등 '결실' 차지했다.

부산시는 상승세를 유지한 배경으로 지난해 6월 '금융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점을 꼽는다. 이를 통해 본격적으로 국내외 금융기업들을 유인하는 계기를 마련하고, 부산을 서울과 함께 대한민국 의 양대 축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등 글로벌 금융중심지로서의 부산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직간접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한다. 이에 더해 시는 이번 순위 상승이 그간 추진해 온 다양한 창업 노력의 성과를 인정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부산시는 다양한 창업지원 정책을 통

해 지역 투자 생태계를 크게 개선했다. 지난해 하반기 3000억원 규모의 '미래성장벤처펀드'를 조성했고, 올해 2월 중소벤처기업부의 '지방시대 벤처펀드'에 선정돼 연내 20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는 등 지역의 투자 생태계가 크게 개선됐다. 또한 향후 9년간 2조3000억원 규모의 '부산 산업전환 녹색펀드'를 통해 기존 중소·중견기업이 새로운 산업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며 첨단 미래 산업 중심의 산업경쟁력 강화, 주력 제조업의 기업가치 제고에도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박형준 시장은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2030년까지 글로벌 20위, 아시아 5위권에 진입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paksunbi@fnnews.com 박재관 기자

Play on Busan

VOTERTALK

목소리로 전하는  
**모험과 낭만**

2024. 3. 28(목) 19:00 부산방송 2층 2호 방송실

18시 30분 | 2025. 3. 19(수) 17:00 - 3. 27(화) 24:00

www.kbs1.com

세상을 가는 두 번째는 **BNK 부산은행**

|주|마|이|비|

모두가 누리는 이동의 즐거움

**eZL 이즐**

캐시비와 마이비카드가 하나되어, 통합 브랜드 '이즐'로 새로워집니다.